

광주FC “2024년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한다”

K리그·亚冠리그 ‘두 토끼’ 잡기… 태극서 29일까지 1차 동계훈련 선수들 자신감 충전…고강도 체력 훈련·조직력 다지기 집중 이정호 감독 “새로운 전술로 업그레이드…새 시즌 준비할 것”

프로축구 광주FC가 또 다른 비상을 위해 태극으로 향했다.

광주는 3일 인천공항을 통해 1차 동계훈련 캠프가 치러지는 태극 치앙마이로 떠났다. 선수단은 29일까지 태극에서 집중훈련을 하며 2024시즌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간다.

준비할 게 많은 캠프다.

광주는 지난해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K리그1에 복귀한 것해 2023시즌 유일한 전구단 상대 승리를 만들었고, 리그 3위라는 구단 역대 최고의 성적을 작성했다.

또 전북현대와의 막판 추격을 따돌리고 3위를 수성하면서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출전권까지 획득했다.

‘이정호표’ 공격축구로 놀라운 시즌을 보냈던 만큼 새 시즌을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가 크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팀에서 두려운 상대가 되면서 선수들의 자신감이 커졌다. “지난 시즌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선수들은 구단 역사상 첫 ‘아시아 무대’까지 대비해야 한다.

리그 성적과 아시아챔피언스리그까지 두 마리를

쫓아야 하는 광주는 태극 캠프를 기본을 다지는 무대로 선택했다.

연습경기 없이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고강도 체력 훈련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체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시즌에도 광주는 태극 치앙마이에서 만족스러운 캠프를 소화했다. 다시 한번 태극을 위망업 무대로 선택한 이정호 감독도 따뜻한 날씨에서 밀 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이정호 감독은 “따뜻한 기후로 부상 위험이 적어서 선수들이 체력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선수들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새로운 전술을 다시 입히기 위한 단계다. 기존 선수와 영입 선수 간의 호흡을 끌어올리며, 포지셔닝을 강조한 조직력 훈련이 동반된다”며 이번 태극 캠프의 목표를 밝혔다.

탄탄한 체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무대’를 겨냥하는 선수단의 각오도 남다르다.

광주의 힘을 보여줬던 2023시즌, 새 시즌에는 상대의 견제도 더 심해질 것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으로 시즌을 맞이해야 하는 만큼 선수들은 태극에서 스타트를 잘 끊겠다는 각오다.

2년 연속 주장으로 광주를 이끌며 K리그2 우승



광주FC 선수단이 3일 인천공항에서 태극 치앙마이로 전지훈련을 떠나기 위해 새 시즌 각오를 다지며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FC 제공>

과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룬 베테랑 안영규는 “하나”를 강조했다.

안영규는 “지난 시즌 우리를 경험한 팀들이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그에 맞춰 감독님이 만드신 새로운 전술이 몸에 녹아들도록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겠다”며 “팀이 아시아 무대에 나가는 만큼 기대가

크다. 집중해서 광주를 알릴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또 “팀의 고참으로서 새로 합류하는 선수들이 어색하지 않고 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팀이 하나가 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극에서 1차 전지훈련을 소화하는 광주는

제주에서 2차 전지훈련을 갖고 전술을 완성할 계획 이다.

광주의 2차 훈련은 2월 4일부터 24일까지 제주 서귀포에서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3월 23일 개막…KIA, 홈서 키움과 대결

팀당 144경기

KIA 타이거즈가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로 2024시즌을 연다.

KBO가 3일 2024 KBO 정규시즌 경기 일정을 발표했다. 11월 프리미어12가 예정되면서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에 3월에 시즌이 개막한다.

3월 23일 개막전이 펼쳐지며, 팀당 144경기씩 총 720경기가 진행된다.

개막전은 2023시즌 최종 순위 상위 5개팀의 홈 경기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우승팀 LG가 잠실에서 한화화 시즌

첫 경기를 치르고, 수원(삼성-KT), 문학(롯데-SSG), 창원(두산-NC)에서도 개막전이 열린다.

5위 두산이 1위 LG와 구장이 겹치면서 원정경기로 시즌을 열고, 대신 6위 KIA가 홈에서 키움을 상대로 개막 2연전을 갖는다. 이어 KIA는 3월 26일부터 롯데와 홈에서 주중 3연전을 치른다. 첫 원정지는 잠실이다. KIA는 3월 29일부터 잠실에서 두산과 원정 주말 3연전을 펼친다.

5월 5일(일) 어린이날 경기는 격년제 편성 원칙에 따라 광주(한화-KIA), 잠실(두산-LG), 문학(NC-SSG), 수원(키움-KT), 대구(롯데-삼성), 구장에서 진행된다.

한편 개막 2연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는 3연전으로 편성된다. 8월 29일까지 팀당 134경기가 우선 편성되고, 미편성된 경기와 우천 취소되는 경기 등은 추후 일정이 확정된다.

지난 시즌부터 2연전을 폐지하고 격년제로 홈 73경기-원정 71경기가 편성하는 원칙에 따라 이번 시즌에는 KIA와 함께 LG, NC, 삼성, 키움의 안방에서 73경기를 소화한다.

울스타전은 토요일인 7월 6일 치러질 예정이다. 울스타 브레이크 기간은 기존 7일에서 4일로 단축되면서 7월 5일부터 8일까지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클린스만호 중동 적응 모드로

전지훈련지 UAE 도착…손흥민 등 합류 ‘완전체’

64년 만에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클린스만호가 ‘기적지’이자 전지훈련 장소인 아랍에미리트(UAE) 땅을 밟았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워런트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 본진은 현지시간으로 3일 오전 UAE 두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전날 처음으로 축구협회 ‘올해의 선수’에 뽑히며 한국 축구 간판으로 거듭난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일부 해외파와 국내파 선수들은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소집해 실내 훈련 위주로 컨디션을 조절해왔다.

선수들은 캠프가 마련된 아부다비로 이동한 후 이날 오후 첫 훈련부터 본격적으로 그라운드에서 호흡을 맞췄다.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프턴), 오현규, 양현준(이상 셀틱) 등 연발연시 소속팀에서 정규리그 일정을 소화한 영국파 선수들도 아부다비 캠프로 곧장 합류하면서 클린스만호도 ‘완전체’가 됐다.

클린스만호 공격진의 핵심 전력인 이강인(PSG)만 톨루즈와의 프랑스 슈퍼컵 경기를 치른 뒤 늦게 합류할 예정이다.

아부다비에서 중동의 기후 등 현지 여건을 경험하며 조직력을 끌어올릴 대표팀은 10일 ‘결전의 땅’ 카타르로 이동한다.

오는 6일에는 아부다비의 뉴욕대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현지 평가전이 예정돼 있다.

최종 모의고사 성격으로 치러지는 이 경기는 아시안컵에서 마주할 ‘결기러 중동 팀’과 일전에 대비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1960년 제2회 대회 이후 아시안컵에서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상당수 대회에서 중동 팀에 발목을 잡혔다.

당장 파울루 벤투 전 감독 체제로 출전한 2019년 UAE 대회에서도 한국은 카타르에 8강에서 패해 짐을 썼다.

64년 만의 우승에 도전하는 클린스만호는 오는 12일 개막하는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마침 중동 팀 2곳과 한 조에 묶였다. 조별리그 E조에서 요르단, 바레인, 말레이시아와 경쟁한다.

클린스만 감독은 전날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환송식에서 “꼭 64년 만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아시안컵을 들어 올리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선전을 다짐했다. /연합뉴스



GO! 메이저리그

미 매체 “고우석, 샌디에이고 계약 임박…마무리 투수 맡게 될 것”

미국 현지에서 고우석(25)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대표적인 소식통인 뉴욕 포스트의 존 헤이먼 기사는 3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우석과 샌디에이고의 계약이 임박했다. 아마도 마무리 투수를 맡게 될 것”이라고 썼다.

아직 추가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계약이 성사되면 고우석은 ‘골드 클럽’을 수상한 내야수 김하성과 ‘한국인 듀오’를 이룬다.

올해 3월 20일과 21일 서울시 고척돔에서 열리는 샌디에이고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MLB 서울 개막전’에서 두 명의 한국 선수를 동시에 볼 수도 있다.

다저스엔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와 야마모토 요

시노부, 샌디에이고엔 김하성과 다르빗슈 유, 마쓰이 유키 등 한일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한일 야구팬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저스와 샌디에이고는 개막 시리즈를 앞두고 수도권 연고 팀과 연습경기도 펼칠 계획이다.

고우석이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고 LG 트윈스타자를 상대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프로야구 LG의 마무리 투수 고우석은 지난해 11월 포스트(비공개 경쟁입찰)으로 빅리그 진출을 추진했다.

LG는 고우석의 몸값에 따라 빅리그 진출 여부를 허락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팅시스템은 원소속구단의 허락을 받아야 이적할 수 있고, MLB 구단은 선수 계약 금액에 따라 일정액을 원소속 구단에 지급해야 한다.

계약 금액이 2500만 달러 이하이면 MLB 구단은 계약금의 20%, 5000만 달러 이하일 경우엔 500만 달러와 2500만 달러 초과 금액의 17.5%를 원 소속 구단에 낸다.

고우석의 협상 기한은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7시다.

한편, 샌디에이고는 2023시즌 마무리를 맡았던 조시 헤이더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으면서 불펜 전력이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최근 일본 프로야구 라쿠텐 골든이글스에서 활약했던 왼손 마무리 투수 마쓰이 유키와 계약기간 5년, 총액 2800만 달러에 계약을 맺으며 불펜 강화에 나섰다. 샌디에이고는 여전히 불펜 갈등을 씻지 못했고, 오른손 불펜인 고우석 영입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전남 골키퍼 박주원·공격수 이성운 영입

전남드래곤즈가 골키퍼 박주원(34·사진 오른쪽)과 공격수 이성운(24·왼쪽)을 영입해 공수를 강화했다.

FA를 통해 전남 유니폼을 입은 박주원은 192cm 81kg의 큰 키를 활용한 공중볼 캐칭 능력이 뛰어나며 1대1 상황에서 선방 능력도 돋보인다. 박주원은 또 킥과 패스 능력을 갖춰서 빌드업을 통한 경기 운영 능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2013년 대전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22-2023년에는 충남아산 골문을 지켰다.

박주원은 “승격을 목표로 하는 전남드래곤즈에서 동료들과 최소 실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휴경기장을 방문하니 마음이 설레고, 팬 분들을 빨리 만나고 싶다. 동계 전지훈련을 통해 강한 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185cm의 장신 공격수인 이성운은 제공권은 물론 스피드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중앙공격수뿐만 아니라 측면 윙포워드 역할도 할 수 있는 공격 자원이자.

전북에서 K리그1 무대에서 뛰던 그는 2022년 서



울이랜드에 임대돼 K리그2 무대도 경험했다.

이성운은 “전북B팀에서 꾸준히 경기에 출전했으며 지금 컨디션이 매우 좋다”며 “작년 전남의 축구를 많이 보면서 이해했다. 빨리 팀의 축구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고, 공격수인 만큼 승리할 수 있도록 공격포인트를 많이 올리겠다”고 포부를 언급했다.

메디컬 테스트를 마친 박주원과 이성운은 바로 팀에 합류해 새 동료들과 호흡 맞추기에 들어갔다. 전남은 1월 8일 태극 방콕으로 가 본격적인 동계훈련에 돌입한다. /김여울 기자 wool@